

“호주전 필승 공식, 몸싸움 이겨라”

KIA, 이용규 어찌할꼬...

2000만원 차이에 연봉협상 즐다리기 팽팽

호주유학과 기성용 측면공격 봉쇄
한템포 빠른 패스로 오늘밤 8강행

‘지호주파’ 기성용(22·셀틱)이 호주와 맞대결을 앞두고 필승 의지를 다졌다.
14일(한국시간) 밤 10시15분 카타르 도하의 알가라파 스타디움에서 제15회 아시안컵 축구대회 조별리그 C조 2차전 호주와 경기를 치르는 한국 대표팀에서 기성용만큼 호주를 잘 아는 선수는 없다.
중학교 1학년 때 호주로 유학을 떠나 4년간 지낸 기성용은 12일 알와크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훈련을 마친 뒤 호주 방송들과 유창한 영어로 인터뷰했다.
기성용은 호주 방송과의 인터뷰 후 “내가 호주에서 지냈던 이야기를 흥미로워하더라”며 웃었다.
기성용은 호주 축구에 대해 “쉽게 (승부) 결정 날 것 같지 않다. 정신이나 육체적으로 모두 더 강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호주 선수들은 몸싸움이 좋다. 따라서 일대일 대결에서 지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측면 공격을 즐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공이 투입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바레인과 1차전에서 선수들이 맡은 바 임무를 다 잘 해냈다고 평가한 기성용은 “그러나 호주는 분명히 바레인보다 한 수 위의 팀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준비해야 한다. 2차전에서도 첫 경기처럼 실력을 발휘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만하다”고 전망했다.
기성용은 앞에 동료 선수들에게 공을 배급하고 수비에서는 수비진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상대 공격을 1차 저지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밝혔다.
바레인과 1차전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던 지동원(20·전남)은 “경기에 나가기 전에 형들이 경험을 많이 들려줘 도움이 된다. 호주가 측면 공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공을 가로챌 때 오히려 중앙에 공간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지동원은 “감독님이 아직 따로 주문한 것은 없다”며 “그러나 평소 내가 중앙에서 사이드로 많이 벌려줘야 박지성, 이청용, 구자철 등 2선 공격진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하신다”고 소개했다. 이날 훈련을 1시간 여 만에 일찍 끝낸 조광래 감독은 “호주는 바레인과 스타일이 다르다. 그러나 한 템포 빠른 패스에 의한 공격력을 갖추면 호주도 그렇게 짜임새 있는 수비 조직력을 가진 팀이 아니라 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광래 감독은 또 “호주가 양쪽 측면에서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부분이나 크로스를 올리는 것이 날카로우면 중앙 수비가 크로스가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많이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몸싸움 대비 12일 오후(한국시간) 카타르 알와크라경기장에서 진행된 축구대표팀 훈련에서 지동원과 기성용이 볼다툼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우즈벡, 쿠웨이트 꺾고 8강 눈앞
중, 카타르에 0대2 패 8강 불투명

우즈베키스탄이 쿠웨이트를 제물 삼아 조별리그에서 2연승을 거둬 8강 진출을 눈앞에 뒀고, 개최국 카타르는 중국을 꺾고 첫 승리를 올렸다.
우즈베키스탄은 12일(한국시간) 밤 카타르 도하의 알 가라파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쿠웨이트와 2011 아시안컵 축구대회 A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1-1로 맞선 후반 20분 세르베르 제파로프의 결승골이 터지면서 2-1로 승리했다.
이로써 2연승(승점 6)을 거둔 우즈베키스탄은 조 선두를 달려 8강 진출이 유력해졌다. 우즈베키스탄은 남은 중국과 3차전에서 비기거나 해도 각 조 1, 2위가 오르는 8강 무대에 선다.
개막전에서 우즈베키스탄에 0-2로 졌던 카타르는 이어 열린 경기에서 중국을 2-0으로 꺾었다. 유세프 아메드의 연속골로 승리를 거둔 카타르는 중국과 나란히 1승1패가 됐지만 승자승 원칙에 따라 2위로 올라섰다. 반면 2패를 당한 쿠웨이트는 자력으로 남은 8강에 오를 수 없게 됐다.
/연합뉴스

연봉 협상이 끝나지 않은 선수는 캠프에 참가할 수 없다는 게 구단의 입장. 지난 3일 재할조로 광 캠프로 출국할 예정이었던 투수 한기수도 재계약이 늦어지면서 7일에야 비행기에 올랐었다.
‘이용규 문제’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면 ‘용병 문제’는 트레비스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일찌감치 아킬리노 로페즈(36)와의 계약을 마무리했던 KIA는 로만 콜론(31)의 거취를 놓고 고심해왔다. 콜론은 지난해 3.91의 방어율로 8승7패를 거둬며 한국 무대에 연착륙했지만, 고질적인 좌안 가림에 시달려온 KIA가 호주 국가대표 출신의 좌완 트레비스 블랙클리(29)에 눈독을 들이면서 그동안 용병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그러나 콜론이 13일 LA 다저스와의 마이네리 리그 계약을 체결하면서 트레비스 영입이 가시화됐다.
콜론의 타구단 유출을 막은 KIA는 트레비스가 부진할 경우 우선 협상권을 갖고 검증된 콜론의 복귀를 논의할 수 있는 안전망을 갖추게 됐다. 콜론도 빅리그에 도전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더 좋은 조건으로 국내에 복귀할 수 있는 포석을 깔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우승 뒤풀이는 즐거워
그 감동 한번 더...
탱크 최경주 소니오픈 ‘팬과의 만남’
미국프로골프대회(PGA) 투어 마지막 라운드에서 우승이 결정되면 챔피언은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서 열리는 소니오픈으로 PGA 투어 2011 시즌을 시작하는 한국골프의 간판 최경주(41·SK텔레콤)는 13일(이하 한국시간) 프로암 대회가 폭우로 취소되면서 대회 조직위원회가 마련한 다과회에 참석해 팬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최경주는 대회코스인 와이알라이 골프장 인근 호텔에서 열린 다과회에서 모처럼 휴식을 취하면서 ‘대회 우승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놓았다.
최경주는 “일단 우승을 하면 시상식과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 행사가 끝나고도 할 일이 무척 많다”고 말했다.
공식 행사가 끝나면 대회 VIP들만 모여있는 방에 가서 따로 인사를 해야하고 그 후에도 주안 방송사를 비롯해 지역 방송사, 인터넷 매체들의 인터뷰에 응해야 한다.
PGA 투어에서 7승을 거둔 최경주는 “대회에서 우승하고 나면 공식 인터뷰 이외에도 대회 마지막날에 평균 15개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다”고 말했다.
최경주는 가장 인상깊었던 우승 행사를 2007년 6월 메모리얼 토너먼트로 꼽았다. 당시 타이거 우즈(미국), 어니 엘스(남아공) 등 특급 선수들을 물리치고 우승했던 최경주는 “각종 인터뷰를 마치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대회 주최자인 잭 니클라우스가 자택으로 나를 초청했다”고 말했다.
니클라우스의 레슨 책으로 골프를 배웠던 최경주는 니클라우스 집에서 만찬을 함께 하며 잊을 수 없는 시간을 보냈다고 회상했다.
최경주는 이제 챔피언으로서의 바쁜 일정을 다시 맞보기 위해 샷을 가다듬고 있다.
2008년 소니오픈에서 우승했던 최경주는 “매년 찾는 와이알라이 골프장이지만 결코 쉬운 코스가 아니다. 후배들도 PGA 투어 새 멤버로 들어왔으니 만행으로서 책임감도 크다”며 시즌 첫 대회에 출전하는 각오를 다졌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K' brand disinfectant. Text: 'SINCE 1982',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전자 습기제거기 (Avantgarde) New Dry box 새로운 전자습기 제거기 출시'. Includes a list of benefit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branches in Gwangju, Suncheon, and Mokpo.